

# 마지막까지... 공방 국감

### 여야, 평양선언 비준·소득주도성장 등 전방위 충돌 윤영위·정보위·여가위 3곳 내달 7일까지 별도 감사

국회는 29일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종합 감사를 열어 앞선 국감 기간 다루지 못했거나 미흡했던 분야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다. 윤영위·정보위·여가위 등 3개 핵심 상임위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별도의 일정으로 감사를 벌인다.

마지막날 국감에서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감사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데 대해 여야가 공

방을 벌였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기본 선형합의인 4·27 판문점선언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합의의 효력을 확정하는 건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꼴"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원론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두 문건(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있는데, 비준을 해야 한다"며 더 구체화된 내용을 국회 비준·동의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분단 상황 속에서 남북갈등, 진영갈등으로 국력을 계속 허비해나갈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 갈지 갈림길에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비생산적 논의를 중단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제처 등에 대한 법

사위의 종합감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면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수사를 받은 판사에게 사건이 돌아갈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외부세력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이뤄진다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법적처의 유권해석을 놓고도 충돌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실폐한 정책이니 간판을 내려라"(나경원 의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데다 성장도 가져오지 못하는 정

책(임용수 의원)이라며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은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서형수 의원), "유독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며 정치적 공세를 한다"(윤후덕 의원)라며 반박했다.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채용특혜 의혹과 단기일자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추진 중인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하는 여당과 연내로 예정된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이해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시급"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국당, 반대 위한 반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농단이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 혁신을 안하니 이런 농단이 이뤄졌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노출됐다"며 "다행히 특별재판부 설치를 하는데 여야 4당이 합의돼 구성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쪼록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역할

을 제대로 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올러 이 대표는 이날 사실상 마무리되는 국정감사를 거론하면서 "국감이 보통 야당의 장(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야당의 장이 아니라 여당의 장이었다"며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잘 밝힌 것은 박용진 의원이 한 일이고, 사법부 농단도 박주민 최고위원이 잘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이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며 "내년 예산은 470조5000억원인데 그동안 과소 추계 예산이었다면 이번에는 적정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靑 "孫 '임종석 자기정치' 비판 동의 못해"

### "철원 방문, 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으로 상황 점검"

청와대는 29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자기 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한 것을 두고 "손 대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실장이 지난 17일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모습이 청와대 유튜브 계정으로 공개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회의에서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당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화살머리고지 방문은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며 손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동영상의 내레이션을 한 것은 임 실장이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민소통수석실에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 과정에 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의장 "여야 손 잡음시" 29일 오전 국회 의정각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 여야, 특별재판부 설치·고용 세습 국조 협의 '평행선'

### 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하고 정기국회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 비공개 회동 후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

들에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먼저 사임시키고 특별재판부를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한 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의혹 국조와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에서 권력형 취업 비리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국조까지도 가능하다"며 현시점에서 국조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진전이 없었다"며 "국회 차원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추진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문제를 논의 하라고 했는데 다들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세습 의혹 국조 문제는) 의장이 아예 꺼내지도 않고 민주당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가 광장히 거침이 없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국회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어서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정말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여러 공방전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갈등을 풀고 경제 문제에 집중해 국민께 안심을 드려야 하는데 여야 정쟁이 격화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여당 입장에서 야당의 지적에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청와대는 청와대 대위야 하고, 여당은 여당대위야 한다. 모든 희생을 내가 진다고 하는 것이 여당만 자세"라며 "야당은 야당대위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막말로 비판을 해대면 국민이 짜증을 낸다"며 중재에 나섰다. /박지경 기자 jkpark@

www.kwangju.com

www.kwangju.com

## 문대통령 지지율 58.7%

### 리얼미터, 고용 비리·증시 급락 등 경제 우려 보도 여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해 5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p) 내린 58.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6%p 오른 35.6%였다.

주간집계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9월 4주차(65.3%) 이후 4주 연속 하락했다. 50%대를 기록한 것은 9월 2주차(53.1%) 이후 6주 만이다. 특히 호남권(9.1%p ↓)과 20대(9.2%p

↓)에서는 하락폭이 컸다.

리얼미터 측은 "이러한 하락세는 주초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과 아울러 주 후반 국내증시 급락 등 각종 경제 관련 우려 보도로 불안감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 전주보다 0.7%p 내린 42.0%를 기록하며 4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1.3%p 떨어진 19.5%로 한 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앉았다. 정의당은 0.3%p 오른 9.0%, 바른미래당은 0.4%p 오른 6.8%, 민주평화당은 0.3%p 내린 2.9%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2019년 광주 부동산시장 전망과 재테크 성공전략 특강

부동산정책이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부동산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강의!

**1. 2019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이렇게 변한다"**

**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마케팅 전공)**

-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전남지부장
- 前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등 초청강의

**2. 저금리시대 수익성 부동산 투자전략**

**강사 : 김형선 박사 (부동산정책 전문)**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컨설팅 주임교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예수센터원장
- 저서 :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외 다수

**일시 | 2018.10월 31일, 11월 1일 (2시~) 특강**

**참가 방법 | 선착순 100명 사전접수 062-417-7016**  
특전-국옥선경매 이용권(7만), 강의교재, 사은품 증정

**광주 북구 오룡동 1110-25번지 (주)G금강2층 강의실(첨단정부청사업)**  
☎ 010-2636-3635

### 한마음 공인중개사

- 광산구 송정동 아파트상가2층 34평형(학원적합) 매매가 7천만원
- 동구 계림동 빌라 35평형 5층중4층 현미대중 전세8000만원 포함 19년1월만료 매매가1억3천만원
- 남구 백운동 2층상가주택 99㎡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매매가 1억8천만원
- 북구 북동 4층상가주택 대지 98㎡ 보증금1300만 월85만원 안집제의 매가 3억7천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상가주택 230㎡ 보증금 1억2천만원 월85만원 매매가 4억5천만원
- 동구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 132㎡ 보증금3300만 월155만원 안집제의 매매가 5억5천만원
- 동구 두암동 3층상가건물 240㎡ 보증금 3천만원 월220만원 매매가 6억원
- 북구 신안동 5층상가건물 146㎡ 보증금 5천만원 월282만원 매매가 7억원
- 북구 운암동 4층상가주택 145㎡ 보7천만원 월260만원 매매가 8억원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270㎡ 보증금 5천만원 월310만원 매매가 8억5천만원
- 남구 백운동 3층상가주택 210㎡ 보증금 1억원 월500만원 매매가 14억원
- 북구 신안동 대지 520㎡ 매매가 14억5천만원
- 남구 주월동 5층상가주택 대지500㎡ 보증금2억 월920만원 안집제의 매매가28억원
- 북구 운암동 대지2600㎡ 보9천만원 월500만원 매매가 44억원
- 해남 사철맞남골목 1300기 토지3만6천㎡ 매매가 10억원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4층 3동 객실37개 월매출 6천~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포함 매매가135억원

☎ 010-2314-8567 (계림오거리)

## 나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6834-7400